

# 사회적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업을 중심으로

김 효 순  
(세종사이버대학교)

본 연구는 사회적 일자리활동에 참여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의 임파워먼트 경험과정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사회적 일자리를 가진 10인의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사례분석을 통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9개의 하위범주들을 도출한 뒤 다시 하위범주들을 묶어 최종적으로 3개의 핵심범주들을 도출하였다. 이렇게 정리된 빈곤여성가구주들의 임파워먼트 경험은 “취업의 필요성”, “경제활동에서 부딪히는 어려움”, “긍정적 변화경험” 등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이러한 3개의 핵심범주들을 통해 볼 때, 사회적 일자리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임파워먼트 경험은 취업활동에서의 어려움을 이기고 긍정적 변화경험으로 강화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적일자리 여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을 통해서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및 임상적 프로그램 개발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주요용어: 결혼이주여성, 임파워먼트, 사회적 일자리

■ 투고일: 2012.11.1    ■ 수정일: 2013.1.31    ■ 게재확정일: 2013.2.12

## I. 서론

최근 세계화, 국제화를 배경으로 결혼을 통해 이주해오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 결혼이주여성<sup>1)</sup>에 관한 관심이 높다. 통계자료(통계청, 2011)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결혼 327,715건 대비 국제결혼이 36,204건으로 총 결혼의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외국인 아내와의 결혼이 28,163건으로 77.8%를 차지하였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가족과 이웃 간의 갈등, 사회관계망 부족, 차별과 인권침해 등을 경험하며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된다(김영란, 2006; 김혜자, 2008; 윤혜미, 2009).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은 환경의 변화로 인한 심리적 위축감과 사회생활 수행능력 부족에서 오는 자신감 저하, 소외감과 박탈감, 자신들을 통제하는 사회구조에 대해서는 물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무력감의 문제를 갖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을 둘러싼 이러한 사회·심리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적응 상의 여러 문제들이 드러나고 결국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의 삶의 적극적 주체가기보다는 무력한 객체로 살아가야할 것이다.

특히 결혼이주여성들 대부분이 저소득층을 형성하고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결혼이주여성의 실태조사(설동훈·윤홍식, 2008)에 따르면 가구소득은 한국 전체 가구소득의 59%, 한국 전체 생산직 가구소득의 68%라고 밝히고 있다. 경제활동과 관련해서는 2009년 현재 결혼이주여성의 36.9%가 취업하였으나 장시간 근로에 낮은 임금의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으며, 직종별 분포는 서비스 종사자(32.5%), 기타 단순노무직(1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2.4%)의 순이다(양인숙·민무숙, 2010). 이처럼 결혼이주여성가구의 경제수준이 전반적으로 낮는데 주목하여 취업관련 연구물들이 나오고 있다. 김여진과 홍환(2009)의 연구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들 가운데서 취업여성들의 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밝히고 있다. 즉, 취업여성이 전업주부보다 덜 우울하고 삶에 더 만족한다는 것이다. 임신, 출산, 자녀 양육 및 가사 등 가족부양으로 미취업상태인 결혼이주여성들도 직업욕구가 강하지만, 기술, 정보, 언어,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취업이 어렵다고 보고된다. 이외에도 양육시설 부재, 구인정보 부재,

1)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이란 국적에 상관없이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여성으로 한국 국적의 남자와 결혼한 외국여성을 의미한다.

희망직종 관련 교육의 부재 등으로 인한 취업의 어려움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능후와 선남이(2010)의 연구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이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에 긍정적 영향력을 미친다고 밝히면서 결혼이주여성들의 높은 취업욕구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 스스로도 취업의 1차적 목적이 경제적 안정이지만 경제활동을 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일에서의 보람을 느낌으로써 얻는 자기실현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양인숙·민무숙, 2010).

최근 시장영역에서 일자리가 고갈되고 경제위기가 깊어가는 상황에서 사회적 일자리가 실업극복과 일자리창출의 대안으로 급부상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구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여성의 경제활동은 빈곤과의 싸움과 자립에 현실적인 도움을 가져다준다고 보고된다(Moller, 2005). 더불어 이러한 경제적 상황의 개선은 가족 및 지역사회에서의 지위향상, 성불평등 감소, 자신감 증가 등 취약계층 여성의 임파워먼트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밝혀지고 있다(Ghosh, 2006). 왜냐하면 임파워먼트란 자신을 위해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와 관련되어 있고, 이것은 자신의 운명을 책임지려는 자세에서 비롯되며, 자신의 삶을 개선하려는 사람이 파워를 가짐으로써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Gutierrez et al., 1998; Lee, 2001; Parsons, 1999).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진행되었던 결혼이주여성<sup>2)</sup>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그들 자신이 겪는 임파워먼트 경험과정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임파워먼트란 클라이언트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삶을 개선하려는 힘을 갖고 있는 상태로 정의한다. 사회적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임파워된다면 무기력한 생활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삶의 주체자로서 가족과 지역사회와 상호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참여에 있어 임파워먼트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적·임상적 개입방향을 제시할 뿐 아니라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업활동의 방향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sup>2)</sup> 본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이란 국적이 상관없이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여성으로 한 국국적의 남자와 결혼한 외국여성을 의미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결혼이주여성의 취업 및 경제활동

여성가족부(2011)의 발표에 따르면, 82%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취업을 희망하였지만 이중 34%만이 취업을 하였으며, 그중 55.4%는 피고용·임시직에 종사한다고 보고된다. 특히 도시에서 임시직 노동자가 많았고, 농촌에서는 무급가족 종사자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의사소통 문제 외에도 농촌에서는 아직도 여성취업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활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설동훈 외(2006)의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 약 34%만이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선족과 한족 등은 주로 식당 등 서비스업에, 필리핀과 베트남 여성은 공장 등 육체적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의 경제활동 상의 어려움은 자녀양육부담과 저임금을 꼽았으며, 비취업중인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도 자녀양육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들 중 향후 취업의향은 82%로 나타나 상당히 높은 취업의지를 나타내었다. 미취업 결혼이주여성이 현재 일하지 않는 이유로는 ‘자녀양육 때문에’(49.1%), ‘한국말이 서툴러서’(13.0%),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9.6%), ‘집안일을 도울 사람이 없어서’(6.4%) 등으로 나타났다(심인선, 2010).

경기도 내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업실태 및 욕구를 조사한 정기선 외(2007)의 연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의 취업률은 30.2%에 이르고 직종으로는 판매서비스직과 생산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경제활동 중인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업욕구 역시 매우 높은 편이었으며, 자녀양육 때문에 혹은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결혼이주여성들이 희망하는 교육 분야는 한국어교육 이외에도 취업훈련 및 고용관련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았다. 현실적으로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취업을 희망하지만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는 비율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설동훈 외(2008)의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 약 34%만이 취업을 하였으며, 나머지 비취업중인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도 자녀양육 때문에 일을 못하긴 하지만 향후 취업의향은 82%로 나타나 상당히 높은 취업의지를 나타내었다. 양인숙과 민무숙(2010)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결혼이민자의 현재 취업률이 36.9%로, 국내 여성고용률 48.6%(통계청, 2011)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월평균소득 역시 100만원 미만인 비중이 과반수를

차지하여 숙련도가 낮은 저임금 일자리에 주로 종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일하지 않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향후 취업의향은 85.7%로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취업욕구가 적극적인 취업활동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 2. 취약계층여성과 임파워먼트

Webster 사전에 의하면 임파워먼트(empowerment)라는 개념이 최초로 제기된 시기는 1940년대로 시민권리운동, 노동조합운동, 흑인투표권 저항운동, 성해방운동 등과 같은 의식변화와 함께 등장하면서 주로 정치학과 사회학 분야에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엄미선, 2003, 재인용). 명사 empowerment는 능력을 얻고, 개발하고, 소유하고, 용이하게 하거나, 허용하는 과정과 관련된다. 즉 임파워먼트는 없거나 부족한 능력을 생성시키거나, 가지고 있는 능력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임파워먼트 과정을 통하여 개인이나 집단은 상대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서 힘을 가진 상태로 이동해 간다고 알려져 있다(Staples, 1990).

사회복지에서는 흑인들이 빈곤상황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입전략으로 임파워먼트를 소개한 197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장애인, 청소년, 학대받는 여성, 빈곤가족 등을 대상으로 임파워먼트 개념과 접근방식을 적용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Gutierrez et al., 1998). 이처럼 사회복지에서 임파워먼트란 사회적으로 배제되거나 차별, 소외되어 있는 취약집단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하여 적용되는데, 이들 사회적 약자나 하위집단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강화시키고 자신의 권한강화를 위해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발달시키는 과정이자 심리적, 사회문화적, 정치적 또는 경제적 영역에서 자원을 증가시키는 방편으로 이해되고 있다.

사회복지실천에서 임파워먼트 개념은 과정, 결과, 목적으로서의 다차원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이 가운데 결과로서의 임파워먼트는 어떤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목적으로서의 임파워먼트는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라고 볼 수 있으며, 역경에 처한 무력감을 갖는 클라이언트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 능력감을 갖게 하고 자신과 주변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변화를 갖게 하는 것이다(Staple, 1990; 김효순, 2013, 재인용). 과정으로서의 임파워먼트는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의미는 부정적인 조건이나 환경들이 변화해 가는 일련의 과정이

며 클라이언트가 자신이 처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참여와 행동화가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과정으로서의 임파워먼트는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강조하여 그들의 잠재력과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인정하고 그들의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클라이언트 개인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조직과 지역사회에서 정치적 파워를 생산하여 그들이 처한 상황을 스스로 개선하려는 정치적, 법적 영향력을 쟁취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개인적 차원의 역량강화경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개념의 하나는 자기정체성이다. 자기정체성이란 개인이 자기가 누구이며,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가에 대해 과거와 현재, 미래의 연속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독특성에 대해 비교적 안정된 느낌을 갖는 것이다. 대인적 차원에서 역량강화는 문제해결능력이나 자기주장력이 향상되는 것과 연계된다. 즉,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특정의 문제 상황에 대해 효과적이고 적응적인 대처반응을 확인하고 발견하는 능력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개인적 타차원의 역량강화와 대인적 차원의 역량강화는 아는 이가 하나도 없는 미지의 세계에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하는 결혼이주여성에게는 매우 중요한 삶의 적응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연구에 의하면 Bell(1999; 김효순, 2013, 재인용)은 일상적으로나 지속적으로 통제력을 상실하거나 무능력을 경험하여 무기력이나 소외감,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해 온 빈곤여성들에게 임파워먼트는 구체적인 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발견하고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안들을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GlenMaye(1998; 김효순, 2013, 재인용)는 여성의 자립에 있어서 여성의 억압과 차별에 대한 의식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자신은 물론 여성일반에 대한 비하나 이중구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였다. 남성중심적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은 교육, 정치, 노동시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성차별을 경험하며 고정화된 성역할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자아인식에 기반한 권리의식보다는 이차적이고 종속적인 존재로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전문적인 기술의 부재나 여성취업에 대한 사회적 배제로 인해 상당한 좌절과 무기력을 경험하게 되며 일자라도 대개 불안정하고 열악한 저임금이나 비정규직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절망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회안전망 혹은 네트워크의 부재, 부적절하고 예측할 수 없는 소득에 의존하여 살 수 밖에 없는 현실로 인하여 여성가구주는 불안, 우울, 상실감, 절망감 등 심리·정서적 문제를 안게

된다. 특히 생활비용을 원가족이나 정부로부터 제공받는 취약계층여성의 경우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경제적 상황, 불안정한 미래, 다중역할로 인한 역할부담으로 인하여 만성적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걸리는 확률이 높아진다(Belle, 1990; 김효순, 2013, 재인용). 이와 같은 심리·정서적 문제는 취약계층여성의 낮은 자존감과 결합되면서 일상생활에서 늘 불안해하거나 구체적 원인도 없이 분노를 폭발하거나 자녀들을 방임 혹은 학대하는 양상으로 나타나며, 타인을 불신하고 배척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의존하고 신입하는 등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사회부적응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사회적 일자리 참여를 통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얻게 된 경험과 영향력을 임파워먼트로 개념화하고 그들이 임파워되어서 발생한 결과보다는 임파워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이렇게 정리된 임파워먼트 경험을 기초로, 임파워된 결혼이주여성들의 개인적 경험과정 탐색을 통해 임파워먼트 관련 요인과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총체적으로 사회적 일자리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3. 사회적 일자리(사회적 기업), 결혼이주여성 및 임파워먼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일자리, 결혼이주여성 및 임파워먼트에 관한 연구성과가 미비한 관계로 사회적 기업, 대안경제 및 취약계층여성과 임파워먼트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사회적 일자리란 정부가 재원을 부담하고 비영리 민간단체가 주도하여 실직빈곤층이나 장기실업자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부문 일자리를 가리킨다. 고용 없는 성장 속에서 실업률은 증가하고, 근로의지는 있지만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는 도저히 취업을 할 수 없는 취업애로계층이 확대되며, 일은 하지만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의 증가, 기존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창출 어려움이 심화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 일자리가 대두되었다. 원래 '사회적 일자리'라는 용어는 1990년대부터 유럽복지국가의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한 '사회적 경제' 혹은 '사회적 기업'의 모델개념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해서 만들어진 말이다(신명호·김중수, 2004). 즉, 저성장의 장기화와 높은 실업률로 인해 복지지출의 지속적인 증가는 복지국가의 재정적 위기를 촉발시켰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역할을 재평가하는 새로운 복지개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노동시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불투

명한 상황에서 국가들이 모색하였던 것은 공공과 비영리기관이 힘을 합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방법이었고 이것이 유럽에서 사회적 기업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책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다.

사회적 일자리의 구분에 있어서는 공익성 여부인지의 일자리의 성격에 따라 공익형 일자리와 비공익형 일자리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익형 일자리에선 국가행정, 사회성비스, 사회간접자본, 환경사업 등이 포함되고, 비공익형 일자리에선 사적인 이윤창출 및 획득을 위한 제반활동이 포함된다. 일자리의 운영 주체로는 국가, 공공, 민간으로 구분된다. 국가의 일자리에선 행정서비스를 행하는 일자리,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가부문의 일자리, 빈민에 대한 공적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일자리가 포함된다. 공공부분의 일자리에선 NPO(NGO) 등이 행하는 공익활동 일자리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자활공동체)등에서 창출·운영되는 공익·NPO(NGO) 비공익형 일자리를 들 수 있다. 민간부분의 일자리에선 민간영리기업에서 행해지는 사업과 관련한 일자리를 들 수 있다. 이 중 일자리의 성격과 창출 운영주체가 모두 '사회적'이라는 개념을 만족하는 것은 공공영역에서 행해지는 공익형 일자리로서 NPO(NGO)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자활공동체) 등이 행하는 공익형 사업만이 포함된다(전병유 외, 2003). 따라서 사회적 일자리는 공적 일자리 창출과 공공영역에서 빈민의 사회적 배제 해소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비공익형 일자리까지 포함하고 있다. 노동부에서는 사회적 일자리를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보건·사회복지·교육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사회적 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로 보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일자리 사업유형은 사업주체에 따라 NGO 단독형, 광역형, 기업 연계형, 사회적 기업형 등의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고 구체적 사업의 유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중점사업, 취약계층 고용 중점사업, 인프라 중점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노동부, 2005). 이처럼 사회적 일자리의 의미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정부가 창출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들과 같이 노동시장이 진입이 곤란한 계층에게 일 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사회적 일자리 혹은 사회적 기업과 여성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회적 기업의 상당수가 여성에 의해 수행되거나 여성을 겨냥하고 있어 여성친화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김태영 외, 2009). 사회적 기업과 함께 '착한 경제' 혹은 '대안적 경제활동'이라고 불리는 공정무역이나 소액대출과 관련한 임파워먼트 연구를 살펴보면, 공정무역의 경우 취약계층여성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자신의 작업이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자아존중감, 성취감, 임파워먼트가 고취될 수 있으며, 소액대출의 경우에도 여성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함으로써 여성의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Swagata, 2006). 방글라데시의 그라민뱅크의 경우 여성들이 집단회의에 참여하고, 단기훈련을 받고, 사회 연줄망을 형성하도록 돕는데, 이러한 활동 자체가 여성의 사회문화적 제약을 완화하고 아내와 딸로서의 삶만이 아닌 사회구성원 역할을 발전시키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서 여성들의 역량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Wakoko, 2003).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자영창업이 여성의 소득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득에 대한 통제력을 향상시키고 일정 정도 독립성을 증진시킨다고 보고된다(Browne, 1995).

이러한 경제적 대안활동은 여성에 대한 구속을 완화하고 여성의 자원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으며, 젠더관계에서도 변화를 인식하게 되어 여성들이 남성들과의 관계에서 좀 더 균형을 이루게 되고, 가계관리로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도 재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도 인식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여성을 사회적, 정치적으로 임파워먼트 시키고 사회변화에서 여성을 파트너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며, 남성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의존을 완화함으로써 가족 내 긴장과 폭력을 감소시키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Belle, 1990; 김효순, 2013, 재인용).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사업이라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임파워먼트 과정은 과연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내용

본 논문의 연구 질문은 “사회적 일자리에 참여한 결혼이주의 임파워먼트 과정의 본질은 무엇인가?”이며, 초기의 면담질문은 개방형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비롯하여 결혼이주여성으로서 사회적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겪게 되는 삶의 경험에 대해 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들은 ① 사회인구학적 질문, ② 직업을 갖게 된 동기

및 과정, ③ 사회적 일자리를 갖게 되면서 크게 변화한 부분(긍정적 변화, 부정적 변화, 개인적 변화, 가족의 변화), 대인관계에서의 변화, 우리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변화, ④ 사회적 일자리 활동에 영향을 미친 개인적 내·외적 자원, ⑤ 사회적 일자리의 의미 등이다.

## 2. 자료의 분석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방법 중에서도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주어진 언어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이를 학문적 용어로 전환하여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써 연구 참여자의 체험의 일반적 의미구조를 도출해내는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의거하여 사회적 기업에 참여한 빈곤여성가구의 임파워먼트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현상학은 연구자들이 경험을 살아 있는 그대로 생생하게 조사할 수 있게 하는 연구 접근법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경험의 여러 측면을 밝혀내고, 그것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즉, 사건을 양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경험을 있는 그대로 연구하는 것이 현상학이다(신경림, 2001).

## 3. 연구대상자 선정과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의 선정방법은 의도적 표집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결혼이주여성 10인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2012년 3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복지관, 이주여성 인권 단체 등 결혼이주여성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을 통하여 10인의 결혼이주여성들을 소개받았다. 참여자 선정에 앞서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인 사회적 일자리사업<sup>3)</sup>에 근무하는 복지관 혹은 인권단체관련 단체 실무자들<sup>4)</sup>의 협조와 조언을 구하였으며 연구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sup>3)</sup> 본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테마기획사업으로 그 명칭은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창출 및 역량강화 지원 사업”이며 첫해에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언어교육, 인권교육, 취업교육 등을 진행하고 그 다음 해에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능력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연결해주면서 점차적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저소득층이고 한국어가 고급능력 수준이상인 결혼이민여성으로 제한하다보니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결혼이주여성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사업의 내용은 일자리창출로 다문화강사, 두 문화 멘토 상담원, 외국어 강사, 통·번역사 양성교육이다.

<sup>4)</sup> 관련실무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연구참여자 기준에 부합하는 결혼이주여성

로 조건에 맞는 대상자들을 추천받았다. 즉,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사회적 일자리 참여기간이 1년 이상 되었으며 임파워먼트의 개념을 알고 있으며, 그 과정을 경험했고 스스로 임파워먼트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사회적 일자리 참여 기관 실무자들의 추천을 받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소개받은 연구참여자들에게는 심층면접을 실시하기 전에 먼저 전화통화 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면접 장소는 주로 결혼이주여성들이 근무하는 기관의 조용한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심층면접이 비구조적 형태의 개방형 면접이었으므로 면접 시간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는 않았으나 사례 마다 2시간 - 3 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참여자에 대한 개별면접 시, 본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는 연구참여 동의서<sup>5)</sup>를 각각 1부씩 작성하여 서명한 후 보관하였다. 면담내용은 연구참여자의 양해 하에 휴대용 녹음기를 사용하여 녹음하였으며 면담에서 확실하지 않거나 불일치했던 내용을 추가로 질문하여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면담이 끝난 후에는 연구자가 준비해간 소정의 현금을 사례로 주었다. 자료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추후 다시 면담하거나 전화나 이메일을 할 경우 연구자는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할 때마다 연구 참여자와 다시 연락하여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으며 연구참여자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 그들의 생각이나 느낌 등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후 연구자는 10개의 사례들에 대한 면담내용을 녹음한 자료를 축어록의 형태로 모두 기술한 뒤 line-by-line으로 개방코딩하면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선택하고 그것들을 주제와 주제묶음으로 범주화하였다. 연구참여자 총 10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

들과의 면접이 가능하도록 대상자를 추천해주고 일정을 조율해준 덕분에 유용한 자료들을 얻을 수 있었다.

<sup>5)</sup> 연구참여 동의서는 연구목적과 면담내용의 학문적 활용, 연구참여자의 신분과 비밀보장, 면접거부권, 면접의 녹음기 사용허가, 면접 후 녹취록 검토기회부여, 면접 자료의 안전한 보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참여자	출신 국가	연령	남편 연령	결혼 기간	거주기간	가족 관계	최종 학력	남편 학력	남편 직업	월평균 소득(남편)	종교	참여 일자리
사례 1	중국	40	52	6	5년 6개월	남편 딸(5세)	대졸	고졸	건축 인부	200만원	기독교	통·번역
사례 2	캄보디아	25	47	4	4년	시아머니 남편 아들(3세)	고졸	고졸	직장인	200-3000만원	기독교	멘토 상담원
사례 3	일본	45	50	16	16년	남편 아들(중2) 딸(초4)	전문대졸	대졸	신문사 지국 운영	200만원	통일교	다문화강사
사례 4	몽골	27	33	4	4년 3개월	시아머니 남편 아들(3세)	대졸	고졸	운수업	150만원	없음	다문화 강사
사례 5	베트남	23	36	3	3년	남편 시동생 딸(2세)	고졸	고졸	노동자	150만원	기독교	멘토 상담원
사례 6	우즈베키스탄	29	40	5	5년	남편 아들(4세) 딸(2세)	고졸	고졸	건축 인부	150만원	기독교	통·번역
사례 7	중국	30	42	6	6년 7개월	남편 아들(5세)	고졸	고졸	자영업	150-200만원	없음	외국어 강사
사례 8	필리핀	23	48	5	5년	남편 아들(4세) 딸(3세)	고졸	고졸	자영업	140-190만원	없음	외국어 강사
사례 9	캄보디아	25	49	7	7년	시아버지, 시아머니 남편 아들(6세) 딸(4세)	고졸	고졸	노동자	150-200만원	기독교	통·번역
사례 10	중국	30	45	4	4년	남편 딸(3세)	고졸	고졸	자영업	150-200만원	기독교	다문화 강사

\* 표에 나타난 연령과 기간 등은 모두 면접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저소득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분야로는 지역 내 유치원, 초중등학교, 지역아동센터에서 다문화 이해교육을 진행하는 다문화강사, 이중 언어를 활용한 상담을 통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한 두 문화 멘토 상담원, 지역교육기관의 외국어 강사, 동화책이나 리플렛 등의 번역사 등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신국은 가까운 일본에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하였다. 사례 3과 사례 4를 제외하고는 배우자와의 연령 차이는 대부분 열상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데 맞선을

주선한 사람들이 2~3살 정도 차이 밖에 나지 않는다는 말을 굳게 믿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에 와서야 남편의 나이가 많음을 알게 되었고 남편이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건강문제 등 자신들이 신경 써야 할 것이 많고 노후도 걱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통일교 신자인 사례 3의 경우는 전문대 졸업 후 간호사로 개인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통일교본부에서 정해주는 신랑과 결혼을 위해 한국으로 왔다고 한다. 몽골국립대학을 졸업한 사례 4의 경우는 평소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었고 몽골남자보다는 한국남자들이 훨씬 잘생겼다고 여기고 있었는데 맞선에 나온 신랑이 키도 크고 잘생겨서 너무 행복하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경제적인 속수준이 낮은 것 외에는 부부 간에 대화도 자주하고 배려하면서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업인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특성상 고학력의 결혼이주여성들이 많은 반면, 그 배우자들 대부분은 고졸수준의 학력이었으며 직업도 사무직은 드물었고 화물배달이나 운송, 건축 노동자, 택시운전사 등으로 경제적 소득수준이 낮은 편이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공통된 특징으로는 그들이 한국으로 시집와서 겪게 되는 언어문제를 비롯한 갈등상황과 그러한 갈등상황을 헤쳐 나가는 과정이나 노력 등이 상당히 많아 있다는 점이었다.

#### 4.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자료 수집을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연구자의 자질, 역량 등이 질적 연구의 성공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질적 연구자는 자신의 개인적 선입견, 가치, 신념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자료를 수집하기 전 그리고 연구과정 중에서 필요하다. 특히 연구자의 배경이나 경력은 연구참여자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면담기술은 자료수집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자는 질적 학회에서 운영하는 워크숍, 세미나 및 각종 연구모임에 참석하여 질적 연구에 대해 학습하였고, 저소득 한부모여성가구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연구경험이 있고, 빈곤여성 이외에도 저소득 남성한부모 가구주, 재혼가족의 청소년자녀, 재혼부부, 한인교포 재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활용한 다수의 연구경험을 갖고 있다. 이러한 과정과 더불어 본 연구는 연구의 타당성, 신뢰성 및 확인가능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의 타당성은 연구자가 가능한 한 분명하게 연구참여자들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 과정과 분석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연구참여자들에게 분석에 포함된 자료들과 분석결과들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연구참여자의 관점과 일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한부모가족 전문가와 동료들로부터 질적 분석과 해석에 관한 조언과 지적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연구의 신뢰성은 연구 결과의 일관성을 의미하는데 이를 위해 관찰, 심층면접, 문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이들 자료들이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는지 비교하였다. 연구의 확인가능성은 다른 연구자들과의 의견교환이나 연구참여자와의 지속적인 접촉들 통하여 자신이 연구에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확보된다. 이러한 연구의 중립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연구자의 선이해를 미리 제시하고, 동료연구자들과의 논의를 거쳐 연구자의 편향성을 파악하도록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자의 편향성에 의해 연구결과가 영향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반성해 갔다.

#### IV.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임파워먼트 변화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중에 겪게 되는 임파워먼트 경험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Giorgi의 질적 연구방법에 따라 범주화를 시도하였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적 일자리참여 경험 내용 중 어려웠던 점, 긍정적인 변화 혹은 부정적 변화 등을 중심으로 모두 9개의 하위 범주들로 요약할 수 있었다

9개의 하위범주들은 정체성이 없는 나,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나의 일을 갖고 싶음, 자녀 양육문제, 잘해낼 수 있을까하는 불안과 설레임, 일이 지속될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 능력에 대한 회의, 한 개인으로서 역량과 존재의 의의 발견, 위축된 이주인에서 당당한 사회인으로 자신감 등이다. 이러한 9개의 주제들은 '취업의 필요성', '경제활동에서 부딪히는 어려움', '긍정적 변화경험'이라는 세 개의 핵심범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범주화가 의미하는 바는 연구참여자들이 불완전한 적응단계에서 사회적 일자리

참여를 통해 자신의 장점이나 역량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들과 같은 처지인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상담이나 문제해결에까지 도움을 주면서 자신들의 역량과 존재의 의의를 발견하고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변화하는 경험을 체험한다는 것이다.

표 2. 핵심 범주와 하위 범주

핵심 범주	하위 범주
취업의 필요성	정체성이 없는 나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나의 일을 갖고 싶음
경제활동에서 부딪히는 어려움	자녀 양육문제
	잘해낼 수 있을까하는 불안과 설레임
	일이 지속될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
	능력에 대한 회의
긍정적 변화 경험	한 개인으로서 역량과 존재의 의의 발견
	위축된 이주인에서 당당한 사회인으로 자신감

## 1. 취업의 필요성

취업의 필요성으로는 ‘정체성이 없는 나’,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나의 일을 갖고 싶음’이라는 핵심구성요인이 있음이 밝혀졌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취업을 원하는 이유로는 경제적인 상황의 개선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 외에도 자신이 잘 할 수 있거나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싶다는 열망이 있기 때문이다.

사례 1(관광회사 가이드), 사례 3(간호사), 사례 4(자영업)와 같이 결혼이주여성 가운데서는 모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거나 자영업에 종사하던 여성들도 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이제 겨우 의사소통이 되고 적응해나가는 단계에서 일자리를 얻었다는 것이 마냥 기쁘기만 한 것은 아닐 것이다. 국제결혼을 하는 남성들이 대부분 낮은 소득수준에 처해 있으므로 결혼이민여성가구는 대체로 저소득층을 형성하게 되어(조희선 외, 2010), 취업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게 된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남편의 무능함을 대신해 생계를 책임져야 함으로 일이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국 엄마들처럼 아이를 키워보고 싶다는 열망 또한 강함을 보여주고 있다.

## 가. 정체성이 없는 나

자기정체성은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자기 자신을 동일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계속성이 존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이념이나 신념, 직업에 의지하면서 자신을 규정지을 때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 온 이후로 의사소통 문제 등으로 인해 우울과 불안, 갈등과 혼란의 시간을 갖게 되고, 사례 1, 사례 3, 사례 7의 경우처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실현하고 지역사회에서의 빠른 적응을 위해서는 주위환경과 적절한 연결고리와 유대관계를 지니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은 혼자 외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복지관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혹은 자녀를 출산한 후에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어 고립된 삶을 지속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말은 못하지만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중국에서 대학도 나왔고 관광 회사 직원이었었는데 왜 집에 박혀서 지내야 하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사례 1)

“처음에는 한국말을 못하니까 시어머니가 밖에 못나가게 하고 길 잃어버린다고 친구들 말이 우리가 도망갈까봐 그런데요. 하루 종일 갇혀서 살았어요. ‘이렇게 살려고 한국에 왔나’하고 갈등이 심했죠. 나도 밖에 나가서 당당하게 활동하고 싶었어요.”(사례 5)

“처음 한국에 와서 주부로 있었어요. 애들 키우고 살림만 하고...‘마음 한 구석에서 집에서 가만있으면 안 돼. 나를 찾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은 항상 있었어요.”(사례 7)

## 나.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결혼이주여성 가구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소득이며, 경제적인 문제가 부부갈등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알려져 있다(김유경 외, 2008). 결혼이주여성들은 한류의 영향인지는 몰라도 대부분 한국에 대해 경제적으로 살기 좋은 나라, 적어도 자신들이 살던 곳보다는 부유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맞선을 주선하는 측의 일방적인 홍보를 믿게 되고 장밋빛 꿈을 안고 남편을 따라오게 된다. 하지만 남편의 경제적 소득은 한국사회의 평균 이하에 지나지 않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것이다.

“남편이 너무 나이가 많고 일거리도 없어서 이번 겨울에는 힘들었어요. 돈 없으면 시어머니랑 시동생이 조금씩 주기는 해요. 그래도 남편이 자꾸 아프고, 아프면 일 못나가니까 큰일이예요.”(사례 5)

“맞선 볼 때는 멋있지만 했어요. 남편 얼굴이 그렇게 까만지도 몰랐고 못사는지는 몰랐어요. 우리 고향에서도 이보다는 잘 사는데...이렇게 못 살지는 않아요.”(사례 9)

## 다. 나의 일을 갖고 싶음

나의 일을 갖고 싶다는 핵심구성요소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취업하려는 이유가 경제적 안정이외에도 직업을 통해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일에서의 보람을 느끼는 김이선 외(200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양인숙과 민무숙(2010)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업상태는 ‘현재 일하고 있다’ 36.9%, ‘현재 일하지 않으나 한국에서 일한 적 있다’ 22.2%, ‘지금까지 일한 적 없다’ 40.9%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수치에서 볼 수 있듯이 약 40%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일을 갖지 않고 있다. 일이 없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인식할 수 없고, 할 일이 없다는 사람,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일상의 무력감과 우울에 쉽게 빠져들게 한다. 특히 모국에서 노동시장에 참여했었거나 참여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사회분위기라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동안 일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막 우울하더라고요 아침에 창문 밖을 봤을 때 자동차가 막 가는 거예요 아침부터 어디로 가나, 나는 뭐하고 있지? 되게 부러웠어요 되게 부럽구... 되게 하고 싶고... 그런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몽골에 있었으면 집에만 있지는 않았어요.”(사례 4)

“남편이 겨울 내내 놀았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걱정 이예요 여기저기에 생활비도 빌렸어요 우리 아이도 학원에 보내야하는데. 한국 엄마들처럼 나도 우리 애 반듯하게 키우고 싶어요. 그럴려면 나라도 벌어야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쉽지 않았어요. 다행히 인터넷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사례 6)

## 2. 경제활동에서 부딪히는 어려움

경제활동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으로는 ‘자녀양육문제’, ‘잘해낼 수 있을까하는 불안과 설레임’, ‘일이 지속될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 ‘능력에 대한 회의’라는 핵심구성요인이 있음이 밝혀졌다. 최근 우리사회도 일-가족 갈등 혹은 일-가족 균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여전히 많은 여성취업자들이 출산(양육)과 직장사이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성가족부의 조사(2006)에 의하면 결혼이민여성들이 외국인으로서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으로 자녀양육을 들었다. 비취업 중인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도 자여양육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비록 이들이 운 좋게 일자리를 얻는 다해도 양육과 가사부담문제로 새로운 가족갈등을 겪는 상황을 연출하게 되는 것이다.

### 가. 자녀 양육문제

현재 미취업 상این 결혼이주여성들의 미취업사유는 자녀양육이 50.7%를 차지하였다(양인숙·민무숙, 2010). 취업여성의 경우 일-가족 양립 곤란의 주된 이유로는 자녀양육문제와 가사부담을 들고 있다. 비취업여성의 대다수 역시 경제적 문제로 취업을 원하지만 일-가족 양립곤란으로 취업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이다. 이처럼 자녀양육은 사회적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음에도 취업여성이나 미취업여성 모두에게 취업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존재한다.

“남편은 처음부터 반대했어요. 애 때문이에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일하라고 그랬어요. 돈 받는다고 하니까 좋아하셨는데… 그런데 애기문제가 걸렸어요. 저도 적응하려고 하다보니까 애기한테 전혀 신경을 못 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도 일하지 말라고…”(사례 2)

“뭐니 뭐니 해도 애 보는 문제 때문에. 시어머니가 봐주시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일 해도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 하기 시작하니까 남편이 집안 일 해야 하니까 싫어 하는 거예요. 몇 달 되었는데 하지 말하는 거예요.”(사례 6)

#### 나. 잘해낼 수 있을까하는 불안과 설레임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업욕구 높은 이유로는 결혼이주와 노동이주의 통합적 관점으로 설명이 가능할 수 있다(박능후·선남이, 2010). 즉, 다수의 결혼이주여성들은 적극적이고 높은 취업욕구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취업현장에서는 주어진 일을 잘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랑 바라는 월급액수가 맞을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적응이 쉽지 않고…한 3개월 적응이 안 되었어요. 그 후에는 익숙해졌어요.”(사례 4)

“처음 교육 받으면서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었지만 그냥 일 년은 해보자라고 마음먹었죠. 그런데 일을 잘 못해서… 활동가 선생님들에게 미한하고…”(사례 7)

“매일 집에서 간혀 살다가 복지관에 와서 교육도 받고… 덕분에 한국어도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일자리도 있고 월급도 준다고 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삼일 오는 게 너무 좋아요.”(사례 10)

## 다. 일이 지속될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

결혼이주여성들은 사회적 일자리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 불안한 속내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들에게는 일자리가 경제적인 소득원이자 친구들을 만나 본국의 소식을 자주 들을 수 있고 주위 지지체계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리라.

“이 일이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는데요. 중단될까봐 걱정 이예요. 제가 벌어서 친정집에 송금도 하고... 성과가 좋은 면 1년씩 연장될 수도 있다고 활동가 선생님에게 듣긴 했어요.”(사례 5)

“힘들게 얻은 일인데 오래갔으면 좋겠어요. 일이 없으면 밖에 나오기 힘들어요. 이렇게 일하러 바깥에 나오는 게 좋아요. 친구들도 다양하게 만나고... 고향 소식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 라. 능력에 대한 회의

결혼이주여성들은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랐으며 그러한 차원에서 자신들이 정말 제대로 잘하고 있는 것인지 걱정하기도 하고 항상 자상하게 가르쳐 주는 활동가 선생님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한 가지라도 더 열심히 배우고 싶다고 밝히고 있다.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 내가 잘 하고 있는 것인지. 미안한 마음 좀 있어요. 저 대신 한국 사람이 했으면 금방 끝나는 일인데 외국 사람이니까 시간 걸리는 건 아닐까...”(사례 3)

“컴퓨터도 더 많이 배워서 잘하고 싶어요.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보다 잘 해야 되잖아요.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긴 해요. 번역하다가 모르는 말 나오면 활동가선생님들이 도와주시기는 하시는데... 한문이 있어서 어려워요. 어떤 때는 집에 일거리 가지고 가기도 해요. 남편은 싫어해요.”(사례 4)

### 3. 긍정적 변화 경험

긍정적 변화경험으로는 ‘한 개인으로서 역량고하 존재의 의의 발견’, ‘위축된 개인에서 당당한 사회인으로 자신감’ 등의 핵심구성요소가 있음이 밝혀졌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사회적 일자리활동을 통해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족의 변화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변화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이제는 뭔가를 잘해낼 수 있다는 자신의 역량을 발견하고 존재의 의의를 찾으면서 문제해결에 대한 대처능력도 키워나간다는 것이고, 가족의 변화는 초반에는 육아와 가사분담문제로 갈등이 나타나기도 했으나 중국어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협조와 인정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참여가 가능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기다가 자라나는 아이가 한국말을 못 할까봐 엄마의 모국어를 일부러 가르치지 않았는데 이제는 결혼이주여성 자신이 이중언어 사용자인데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더 나아가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와 남편 역시 결혼이주여성의 능력을 인정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결혼이주여성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신들의 모습에서 우리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뿌리내림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 가. 한 개인으로서 역량과 존재의 의의 발견

결혼이주여성들은 사회적 일자리 활동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새로이 발견하기도 하고 새로이 문제해결방법을 찾음으로써 문제해결능력이 커졌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즉, 결혼이주여성들은 사회적 일자리 활동을 통해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존재 의의를 찾았다든지 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역량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이제는 주위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워한다. 처음 한국에 시집와서 한국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쓸모없을 것 같았던 자신들이 이제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모국어로 상담도 하고 통번역도 하는 유용한 인간이 된 것이다.

“오랫동안 주부로만 있었는데 이일을 해보니까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더 노력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그래서 잘 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례 3)

“나는 한국에서도 나는 살아있구나. 한국어를 좀 더 배워야하지만 제가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사는 모습이 저한테는 되게 발전했구나하고 느껴지고...이만 하면 말도 잘하고 있구나. 나도 이렇게 잘 할 수 있구나하고 놀라는 때가 있어요 나 자신이 자랑스럽기도 하구요.”(사례 4)

“일자리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인형극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발표도 많이 했는데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 하고도 어느 정도 인사도 나누고...”(사례 8)

“친정엄마, 아빠한테 내가 돈 벌었다고 얘기하고 용돈 보냈어요. 내가 한국에서 취직했 다니니까 좋아하시고 또 남편 돈 아니고 내가 직접 벌어서 보낸다니까 되게 좋아하셔요.”(사례 10)

## 나. 위축된 개인에서 당당한 사회인으로 자신감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나 남편, 시댁식구들로부터 사회적 역할에 대해 인정을 받으면서 위축되어 살아가던 자신이 아닌 자신감에 차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자신이 아니 다른 사람들, 특히 같은 이주여성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더 큰 보람을 느끼게 되고 이제는 우리 사회의 일원이자 구성원으로 다시 태어남을 인지하게 된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주말이나 연휴에도 남편 혼자 외출한다든지 혹은 혼자 외출하는데 대한 부담으로 사회적 활동에 있어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고립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기 쉽다. 따라서 그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좀 더 다양한 사회참여 활성화방안들이 필요할 것이다.

“내가 피곤해서 아이랑 자주 못 놀아주지만 엄마가 일한다니까 애도 유치원 가서 자랑하고 좋아해요. 시댁식구들도 우리 며느리가 좋은 일 한다고 친척들한테 자랑하고...저도 같은 이주여성들한테 정보도 주고 상담도 해주니까 보람을 느껴요.”(사례 2)

“우리 아들은 엄마가 일하는 것 알고 있어요. 전에는 뭐 사주면 ‘이건 엄마가 사주는 거야 아빠가 사주는 거야?’하고 물었는데 이번에는 아빠 돈 아니야 엄마 돈이야. ‘신발도 사주고 엄마가 버는 걸로 사주는 거다’하니까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전에는 엄마는 돈 없어. 아빠한테 사달라고 해’ 이랬는데 ‘이제 우리 엄마가 힘이 있구나’ 이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남편도 표현은 안하지만 내심 좋아하는 것 있죠.”(사례 8)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연구를 통하여 사회적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임파워먼트 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클라이언트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삶을 개선하려는 힘을 갖고 있는 상태를 임파워먼트로 개념화하고 결혼이주여성들이 임파워되어서 발생한 결과보다는 임파워되어 가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혼이주여성들의 경험은 취업의 필요성 범주(정체성이 없는 나,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나의 일을 갖고 싶음)와 경제활동에서 부딪히는 어려움 범주(자녀양육 문제, 잘해낼 수 있을까하는 불안과 설레임, 일이 지속될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 능력에 대한 회의)를 거치면서 한 개인으로서 역량과 존재의 의의 발견, 위축된 개인에서 당당한 사회인으로 자신감이라는 긍정적 경험을 갖게 되면서 자신들의 역량이 강화되는 임파워먼트를 겪게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업인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참여사업을 통해서 결혼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 변화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의 임파워먼트는 한 개인으로서 역량과 존재의 의의 발견 및 결혼이주여성에서 당당한 사회인으로 자신감을 드러내는 긍정적 변화과정에서 그 정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는 사회적 일자리가 취약계층여성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빈곤에 대처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서 여성의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데도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Moller, 2005)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즉,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통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은 빈곤과의 싸움과 자립에 현실적인 도움을 가져다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일자리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은 단지 돈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들의 역량과 존재의 의의를 찾아내었으며, 일에서 돈벌이 이상의 의미를 찾고자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고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무엇보다도 결혼이주여성들은 사회적 일자리사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내심 불안해했고 일정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면 최선을 다해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주관기관들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며 그 외 관련 기관들의 전폭적인 지원 역시 있어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결혼이주여성들은 직접적으로는 경제적인 이유로,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역량 강화를 위하여 취업에 대한 높은 욕구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 취업을 하게 되는 결혼이주 여성은 많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놓여 있다. 본 연구대상자인 결혼이주여성들은 일을 통해 경제적인 소득을 창출하고 멀리 떨어져있는 친정에도 당당하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이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에 긍정적 영향력을 미치므로 결혼이주여성들의 높은 취업욕구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박능후와 선남이(2010)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현재 일하지 않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의 향후 취업의향 역시 85.7%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취업욕구가 취업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둘째, 결혼이주여성들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신들의 정체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참여를 통해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임상적 프로그램 개발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적 일자리사업을 통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의 역량이 강화됨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일자리나 사회적 기업의 활동영역은 매우 광범위하다고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사회적 일자리는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 특히 사회적 서비스 업종, 특히 여성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업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취업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업에 참여한 서울 및 경기권의 유관단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관계로, 한국어가 고급능력 수준 이상, 학력은 고졸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지방, 특히 농촌지역의 사회적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까지 확장, 적용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전국적 사회적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양적 연구와 심도 있는 질적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좀 더 깊이 있는 연구 성과가 도출될 것이다.

김효순은 서울시립대학교, 성균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박사를 받았으며, 현재 세종사이버대학교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가족복지이며 현재 재혼가족 프로그램개발과 효과성,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neri9657@sjcu.ac.kr)

## 참고문헌

---

- 김여진, 홍환(2009). 중고령 전업주부와 취업여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1, pp.93-118.
- 김영란(2006). 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의 삶과 사회문화적 적응관련 정책. 아시아여성연구, 45(1), pp.143-189.
- 김이선, 양인숙, 황정임, 고혜원(2008).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통합 진전을 위한 브릿지프로그램 추진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태영, 김준기, 김종수, 이준영, 최조순(2009). 사회적 기업을 통한 여성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 자료집.
- 김혜자(200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배우자지지, 건강교육 요구와 삶의 질.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4(1), pp.5-11.
- 김효순(2013). 사회적 기업 활동을 통한 빈곤여성가구의 취업경험에 관한 탐색적 - 임파워먼트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5(1), pp.21-45.
- 노동부(2000).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 서울: 노동부.
- 박능후, 선남이(2010).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취업이 한국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민족연구, 41, pp. 120-144.
- 설동훈, 윤희식(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복지정책의 과제. 사회보장연구, 24(2), pp.109-133.
- 성정현, 송다영(2006). 근로빈곤층 여성가장 가구의 생활실태와 심리사회적 문제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21, pp.81-107.
- 신경림(2001). 현상학적 연구. 서울: 현문사.
- 신명호, 김종수(2009). 사회적 일자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시와빈곤, 68, pp.37-49.
- 심인선(2010). 결혼이민자의 취업 및 직업훈련 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65, pp.36-45
- 양승민(2008). 한국적 다문화상담의 모색을 위한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들의 스트레스 요인과 반응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엄미선(2002). 도시빈민의 임파워먼트를 위한 자기옹호전략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리뷰, pp.127-144.

- 여성가족부(2011). 결혼이주여성 자료집. 서울: 여성가족부.
- 윤혜미(2009). 결혼이민자가족을 위한 임파워먼트기반의 사회복지실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4), pp.74-95
- 전병유, 박찬임, 장지연, 정인수, 황덕순, 황수경(2003). 사회적 일자리창출방안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정기선, 김영혜, 박경은, 이은아, 박지혜(2007). 경기도 국제결혼 이민자 가족지원 장단기계획. 수원: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조희선, 양다진, 김세리, 이남희(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체험활동을 통한 자아존중감 향상에 관한 연구-취업의지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1), pp. 123-147.
- 통계청(2011). 혼인통계 결과발표자료. 대전: 통계청.
- Belle, D. (1990). Poverty and women's mental health. *American Psychologist*, 45, pp.385-389.
- Browne, C. V. (1995). Empowerment in social work practice with older women. *Social Work*, 6, pp.358-364.
- Gibson, C. H. (1995). The Process of empowerment in mothers of chronically ill children.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1, pp.1201-1210.
- Glen, M. L. (1998). *Empowering of women*. edited by Gutierrez, R.Parsons and E. Cox. Empowering in Social Work: A Sourcebook. Pacific Grove: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Gutierrez, L., Parsons, R., Cox, E. (1998). *Empowering in Social Work: A Sourcebook*. Pacific Grove,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Lee, J. (2001). *The Empowerment Approach to Social Work Practi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Moller, K. (2005). *Organizing domestic workers :a protective regulatory framework for domestic work*. ETUC(European Trade Union Confederation) Seminar (pp.14-15)
- Parsons, R. (1999). *Assessing helping processing and client outcomes in empowerment practice*. *Empowerment Practice in Social Work*. edited by W. Shera and L. Wells. Canadian Scholars; Press Inc.

- Ghosh, S. (2006). 아시아 공정무역과 젠더. 여성환경연대, 공정무역 아시아 여성포럼자료집.
- Staples, L. H.(1990). Powerful Ideas about Empowerment. *Administration in Social Work*, 14(2), pp.34-79.
- Swift, C. Levin, G.(1987). Empowerment: An emerging mental health technology. *Journal of Primary prevent*, 8, pp.54-72.

# **A Study on Internationally Married Women's Empowerment Experience Participating in the Social Job:**

## Focusing on the Community Chest Programme

**Kim, Hyo Soon**

(Sejong Cyber University)

---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empowerment experience of internationally married women's empowerment participating in the social jobs. For this study, ten internationally married women were interviewed and the collected qualitative data were analyzed through case study analysis. Main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four main categories, such as the unstable adaptation, necessity of employment, difficulties in economic activities, positive experience of changing.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empowerment experience of internationally married women through social jobs was observed to get themselves strengthened. Therefore, various policies and practical programs to improve not only empowerment of internationally married women through social jobs but also their working conditions are needed to developed.

---

**Keywords:** Internationally Married Women, Empowerment, Social Job